

# 教育用漢字 代表訓 설정에 관한 一考

韓 延 錫\*

## <目 次>

I. 序言	IV. 代表訓 설정의 漢字學的 원칙
II. 韓國語文會 代表訓 설정 준칙 검토	제시
III. 代表訓 설정에 대한 문제제기 양상	V. 結語

## <국문 초록>

(사)韓國語文會와 (사)傳統文化硏究會의 代表訓 설정은, 1字1訓 제시로 학습자 혼란을 줄이고 전통적 漢字教學방법을 保守하기 위함이었다. 漢字學과 訓詁學 기반이 취약하였던 상황에서, 2000년 두 단체의 대표훈 설정은 최선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대표훈 제정이후 대표훈의 수정, 單數訓과 複數訓의 설정, 多數訓 허용, 서술형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대표훈에 대한 정의, 設定原則 제시가 漢字學的으로 미흡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듯하다. 漢字學에서 주장하는 字典의 義項 배열은 本義, 引伸義, 假借義 순이다. 代表訓은 이들 모두를 제시할 수 없어, 가장 대표성을 띤 訓 하나만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本義를 대표훈으로 선정해야 한다. 本義를 찾을 수 없거나 罕用, 혹은 死滅되었으면 基本義를, 마찬가지로 여의치 않으면 引伸義를, 이마저 곤란하면 常用의 假借義를 대표훈으로 선정해야 한다. 한자는 詞義운동에 의해 많은 것은 40여개의 意義를 具有하기도 하지만, 本義는 어떤

\* 公州大學校 師範大學 漢文教育科 助教授 / hanyoun4860@hanmail.net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띄고 모든 義를 概括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자어 혹은 문장을 해석할 때 應用할 수 있고 轉移가 용이하다. 1字 2, 3訓을 제시하면 대표훈 制定의 원칙과 정신이 毀損되고 굳이 이를 대표훈이라고 부를 필요도, 대표훈 제정의 이유도 없다.

【주제어】 代表訓, 義項, 本義, 引伸義, 假借義, 漢字學, 單數訓, 複數訓

## I. 序言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한자 1800자는 교육부외에도 (사)韓國語文會와 (사)傳統文化研究會<sup>1)</sup>가 공동으로 訓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語文會가 제정한 訓을 代表訓이라 부르는데, 이들 代表訓에 대해 일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語文會는 주로 전통을 중시한 대표훈 설정을, 문제 제기자들은 國語 혹은 漢文 측면에서 대표훈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문회이든 문제 제기자이든 한자학을 근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代表訓 설정과 字典의 義項 배열 원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한자는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전통 字書나 漢字教學書인 千字文 訓蒙字會 등은 다수의 義項 가운데 대표적인 뜻 하나만을 거출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漢字教學 방법은 대표적인 뜻을 음과 함께 連讀해서 익혔다. 이는 한자 학습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었는데, 일부 중고등학교 교재나 漢字教學 관련 書가 한 개 이상의 뜻을, 혹은 임의로 뜻을 제시하여 혼란을 야기하자, 語文會가 2000년 1800자의 한자에 대해 ‘教育漢字 代表訓音’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代表訓音 제정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選定의 적합성 여부에

1) 이하 (社)韓國語文會와 (社)傳統文化研究會는 ‘語文會’로, ‘教育漢字 代表訓音’은 ‘代表訓’으로 약칭한다.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대략 국어 측면과 漢文教育的 측면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前者는 설정된 대표훈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국어단어(한자어)와의 연관성,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後者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문장과 한자의 대표훈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제기의 양상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부 代表訓이 漢字語나 漢文의 詞素로서의 일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대표훈을 2개 혹은 다양하게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부차적인 문제로 일부 진술이나 표기 등을 수정할 것도 제안하였다.

본고는 漢字學的 입장에서 대표훈 설정 원칙의 적합성과, 대표훈 설정에 대한 異議 제기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代表訓 설정의 한자학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국어학과 한문학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표훈 제시나, 현재 소통되고 있는 代表訓을 다시 제정하자는 것도, 당장 수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표훈 설정의 기본원칙을 漢字學的 입장에서 제시하여 차후 바람직한 논의를 이끄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II. 韓國語文會 代表訓 설정 준칙 검토

### 1. 선정 원칙과 代表訓에 대한 定義

語文會의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1) 漢文教育用 基礎漢字(약칭 : 교육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教育漢字의 教育的인 기능을 效率化한다. 3) 傳統性和 現代 實用性을 調和시킨다. 4) 普遍的이고 合理的인 訓을 原則으로 한다.<sup>2)</sup>

2)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委員會,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案)』, (社)韓國語文會, 2000, p.3.

위 원칙에는 ‘대표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定義 項이 없다. 제2항은 대표훈 설정의 주목적이고, 제4항은 선정 기준, 원칙이며, 나머지는 선정 원칙이라기보다는 고려 사항들이다.

選定委는 제2항 ‘教育漢字의 教育的인 기능의 效率化’는 중구난방으로 제시되던 訓을 하나의 ‘(제4항)普遍的이고 合理的인 訓’의 제시로 달성하려 하였다. 단, ‘普遍的이고 合理的인 訓’은 漢字學에 기반 한 것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字書와 訓蒙書에 제시된 訓이 기준이 되었다. 이런 접근은 이들 자서나 훈몽서가 적합하게 義項을 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만약 이들의 의항제시가 부적합하다면 대표훈 설정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語文會의 대표훈<sup>3)</sup>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선정 원칙의 漢字學的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선정원칙에 의해 11개 항의 細則이 정하졌고, 그 가운데 제1항 “代表訓의 趣旨에 따라 一字一訓을 原則으로 하고, 複數訓이 부득이한 경우 괄호 안에 併記한다.”<sup>4)</sup>가 제시되었다.

## 2. 代表訓에 대한 漢字學的 인식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에는 ‘대표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定義 項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그 인식의 일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漢字의 경우, 訓民正音 창제 이후는 訓蒙字會와 類合·千字文 등 字書에서 가령 ‘하늘 던’ 하듯이 대개 한 字에 한 개의 訓음을 달아 마치 하나의 名稱과도 같이 기계적으로 익히고, 대화 때에는 ‘熙·빛날 회’처럼 訓과 音을 들어 意思 소통을 했던 것이다. (중략) 訓民正音 創製 이후 우리 字書는, 時代와 著者에 따

3) 이 案은 (社)韓國語文會의 全國漢字能力檢定試驗에 출제되는 公式 代表訓音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韓國語文會 대표훈음은 朝鮮朝 蒙學教材에 수록된 傳統 訓음을 기초하여 선정된 것이다.

4)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委員會,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案)』, (社)韓國語文會, 2000, p.3. 지면의 절약을 위해 세칙은 생략한다.

라 다소 변화가 있으나, 代表訓에 하나의 共感帶를 이루어 公約數的으로 나타내는 전통이 形成되었다. 우리는 傳統의 서당교육에서 글을 가르칠 때도 ‘天 : 하늘 天 · 地 : ㅌ 다’처럼 표기해 代表訓 ‘하늘’과 ‘ㅌ 다,’ 代表音 ‘턴’과 ‘디’를 마치 ‘天’과 ‘地’의 이름처럼 쓰고, 만약 달리 읽히는 경우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간다는 식으로 但書を 붙였다.

이 代表訓音은 우리만이 지닌 漢字 認知의 가장 效率的인 方法인데, 現行 漢文教科書에는 종래 ‘저자 시’라고 해오던 ‘市’를 ‘도시 시’라고 혼을 붙여 전통성을 무시하는 例가 나타난다.<sup>5)</sup>

위 내용을 참고하면 代表訓이란 전통 字書 혹은 童蒙教材에 ‘전통적으로 붙여주었던 訓’을 가리키고, 선정의 準據는 ‘전통성’이다. 代表訓의 선정은 사용의 功効이나 漢字학적인 합리성 여부를 떠나 ‘전통성’이 그 선정의 當위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漢字의 訓의 전통성 확보는 그리 만만한 것이 못된다. 千字文이나 訓蒙字會 등의 童蒙敎學書나 新字典 등에 실린 漢字의 訓이 모두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教育漢字 選定 작업은 우선 教育漢字 1,800字에 대해 ① 이미 研究된 ‘南廣祐 · 李應百 · 鄭愚相 · 李果珍 · 北韓’의 代表訓音 중 完全一致 字 분류, ② 一致字順 一覽表 作成, ③ 부득이 複數 訓이 필요한 字 분류, ④ 現實化가 필요한 訓의 改正 論議 등의 研究檢討와 團體長 審議 過程을 거쳐 代表訓音을 確定하였는데, 모든 訓音에 長短을 구분해 表示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sup>6)</sup>

대표훈음 설정은 ‘전통’이 기준이 되었지만,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것은 각 연구자들이 나름의 원칙을 세워 제시한 것들을 참고하여 선정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代表訓이란 ‘전통적으로 붙여주었던 훈’이며,<sup>7)</sup>

- 
- 5)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委員會,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 經緯』,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案)』, (社)韓國語文會, 2000, 쪽 수 없음.
  - 6)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委員會,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 經緯』,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案)』, (社)韓國語文會, 2000, 쪽 수 없음.
  - 7) 우리 자전은 독자적인 편찬을 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것을, 195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것을, 최근에는 다시 중국의 자전을 참조하는

선정의 당위성은 ‘전통성’이 담보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북한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고한다는 주장은, 漢字學 기반이 취약했던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동시에 최선일 수 있지만 합리성 확보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대표훈 설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李果珍의 연구를 보면 대표훈에 대한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李果珍은 “漢字의 代表訓을 訓蒙字會에서는 ‘常用之釋’이라 하였다. 日常生活에 通用되는 訓을 가리키는 말이다.”<sup>8)</sup>라고 하여, ‘常用義’를 代表訓으로 인식하였다. ‘常用義’의 사전적 의미는 ‘多義詞인 한자가 가지고 있는 義項 중 사용 頻律이 가장 높고, 운용범위가 넓은 意義’<sup>9)</sup>를 가리킨다. 常用의 기준은 전통적인 한문문장 입장과 국어의 한자어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 代表訓 선정 이후 제기된 疑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표훈과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의 意義와 일치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훈’을 ‘전통적으로 지칭되던 뜻’이란 定義나 ‘常用義’로 설정하는 것 모두 한자학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대표훈’은 어떤 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의항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本義’ 혹은 ‘基本義’로 정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 Ⅲ. 代表訓 설정에 대한 문제제기 양상

代表訓에 대한 이의 제기자 역시 한자학적인 면을 고려치 않고 표면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여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혹자는 초학자들의 한자한문 학습편의를 위해 一字一訓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

듯하다. 중국의 고대 자전은 근래 자전처럼 漢字學, 辭書學의 도움으로 本義를 맨 처음 배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자전의 첫 번째 의항이 모두 代表訓이 될 수는 없다.

8) 李果珍, 「教育漢字의 代表訓 研究」, 慶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8.

9) 中國言語學大辭典編委會, 『中國言語學大辭典』, 江西教育出版社, 1991, p.288.

을 인정하면서도, 代表訓이 무엇이고 왜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意義가 무시된 주장들도 보인다.

## 1. 代表訓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 1) 代表訓의 일부 수정 요구

대표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語文會 제정의 代表訓으로 한 자어를 直解하였다니 한자어와 그를 구성한 詞素義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훈을 相應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길선영은 어떤 한자를 형태소로 하는 한자어 가운데 사용 頻度가 가장 높은 한자어에 어문회가 제정한 대표훈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니 일치도가 떨어지는 것이 많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當’의 訓이 ‘마땅하다, 마땅’으로 제시되었는데 현행 교과서에서 ‘當然, 當年, 當事者, 當時’ 등으로 제시되었고, 말뭉치 頻度數는 ‘當時’는 3872, ‘當然’은 1220, ‘擔當’은 1295이고, ‘當時’의 사전적 의미는 ‘그 때’이고, ‘當然’은 ‘마땅히 그러하다’, ‘擔當’은 ‘어떤 일을 맡음’을 뜻한다. 따라서 말뭉치 자료의 頻度數가 가장 높은 漢字訓 ‘그(이)’를 代表訓으로 提案하고자 한다.<sup>10)</sup>

‘當’의 경우 ‘말뭉치 頻度數’를 근거로 ‘마땅하다, 마땅’을 ‘그(이)’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漢字學 원리뿐만이 아니라 한문문장에서의 사용을 무시한 국어측면에서의 주장이다.

### 2) 代表訓의 二元化 요구

대표훈을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代表訓의 일부 수정’ 주장과 유사한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나 수정 방향은 약간 다르다. 김왕규는 한국어문

10) 吉善英, 「教育用漢字의 代表訓 設定에 관한 研究」, 中央大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國語教育專攻 碩士學位論文, 2007, p.39.

회 설정의 代表訓을 기준으로, 한자어의 뜻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뜻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더니 대략 상응하는 것이 60%, 상응하지 않는 것이 40% 정도가 되었다.<sup>11)</sup>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대한 국가 수준의 대표훈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표훈 ‘선정 원칙’ 및 ‘세칙 규정’과 관련 하여, 대표훈의 일차적 목표를 한문 고전 자료 독해와 국어 어휘 의미 파악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sup>12)</sup>

첫 번째 이유에 대해 語文會의 대표훈 설정은 ‘국가 수준의 제정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대표훈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제안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행 기초 한자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성격과 국어 어휘용 기초 한자의 성격을 공유한다. 그러한 성격이, 논자의 관점에 따라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자어 이해와 관련해서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자 자훈 교육의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곧 단수 자훈 교육(초등 수준)과 복수 자훈 교육(중등 수준)이 바로 그것이다.<sup>13)</sup>

김왕규는 위와 같은 예로 “예컨대 ‘部’의 경우, 한문고전 자료의 용례는 ‘때’ 곧, ‘촌락’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많지만, 현대 국어 어휘의 용례

11) 金王奎, 「한자 자훈(字訓)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 3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pp.200-206. 참조.

김왕규는 한자어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와의 意義의 상관성을 ‘투명’과 ‘불투명’으로 나누고 ‘透明度’란 “알고 있는 한자의 뜻(구체적으로 개별 한자의 대표 훈을 말함)을 그 한자를 형태소로 하는 한자어에 대입하였을 때 직해(直解)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12) 金王奎, 위의 논문, p.208.

13) 金王奎, 위의 논문, p.208. ‘주석 4’ 참조.



는 ‘부분’ 곧, ‘나누다’, ‘구분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sup>14)</sup>”고 하였다. 즉, 漢文과 國語 語彙에서 사용되는 訓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예컨대 則은 한문에서는 접속사 ‘~면’으로, 국어에서는 ‘법’으로 많이 쓰인다. 김왕규의 사실 인식은 정확하지만, 이원화는 ‘대표훈’이란 명칭과 그의 설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원화를 하려면 대표훈이란 용어 역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具體的이고 다양한 訓 요구

하나의 訓만으로는 한자어 혹은 한문에서의 用法을 예측 할 수 없을 경우, 두 개 이상의 代表訓을 제시하자는 주장이다. 許喆은 대표훈 제시 목적을 ‘교육의 균질성 및 한자학습의 유용성’을 들고, 대표훈 제정은 ‘본의를 위주로 하되, 그 본의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 활용이 많은 자의로 대표자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즉 本義를 중심으로 하되, 본의가 쓰이지 않으면 引伸義를, 인신의 역시 쓰이지 않으면 假借義를 제시하자는 것으로 漢字學的으로 설득력이 있으며, 필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는 ㉠‘자의 전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에서는 대표자의와 함께 본의와 인신의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자의와 더불어 자의 쓰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sup>15)</sup>라고 하고,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聞을 듣다로 표기한다면, 聽은 자세히 듣다, 혹은 귀 기울여 듣다로 표기할

14) 金王奎, 「한자 자훈(字訓)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 3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p.208. ‘주석 4’ 참조.  
 15) 許喆,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第43輯, 동방한문학회, 2010, pp.257-276. 참조.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그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sup>16)</sup>

한마디로 현재 聞과 聽처럼 同一訓으로 제시된 대표훈을 특정한 사용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제정하자는 것이다.<sup>17)</sup> ⑥주장에 대해 本義와 引伸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字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白의 ‘쓰다(알리다)’란 의미는 이두에서 시작하여 현재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훈과 함께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8)</sup> ⑦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문에서 ‘言’은 자발적으로(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語’는 다른 사람의 물음에 대답해주는 것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하나의 사건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다.<sup>19)</sup>

16) 許喆,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第43輯, 동방한문학회, 2010, p.275.

17) 聽의 갑골문이나 금문은 耳(들음)와 口(발성)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본의는 ‘듣다.’이다. 필자는 聽의 ‘자세히 듣다.’라는 뜻을 믿을 만한 工具書(字書)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 示, 視, 見, 觀 등을 ‘보다, 자세히 보다, 따져 보다’ 등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漢字學상으로 聽과 聞의 위와 같은 구분을 필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 于省吾는 옛날 聖, 聲, 聽이 同字이었다고 주장하고 갑골문에서의 뜻은 첫째 聽聞, 聽治, 둘째 廷 혹은 庭의 初文으로 궁정을 나타내었다고 한다.(于省吾, 『甲骨文字詁林』(제1책), 中華書局, 1996, pp.661-662. 참조.)

18) 許喆, 위의 논문, p.276. 참조.

19) 言과 語의 본의 역시 필자의 주장처럼 세분된 것이 아니다. 言의 갑골문 자형은 ‘舌’과 ‘一’로 구성되었다. ‘一’은 지시부호로 혀 위에 그려 말이 혀 위로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어 ‘말’이 본의이다. 語는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설문에 의하면 ‘담론하다’가 본의이다. 言은 본의 ‘말’로부터 인신의 ‘의논하다’, ‘담론하다’(『論語·學而』“賜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담론할 수 있구나.[賜也, 始可與言詩已矣]”), ‘알리다’(『禮記·哀公問』“其順之, 然後言其喪算”의 鄭玄注 “言은 ‘알리다’이다.[言, 語也]”)가 나왔고, 語는 본의 ‘담론하다’로부터 ‘말’(『孟子·滕文公下』“내가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여기에 楚의 大夫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제나라 말을 하길 원한다면 제나라 사람

첫 번째 주장과 같이 同一訓을 구분하여 구체 使用例를 제시하지는 것으로, 본인이 주장한 本義 중심의 대표훈 설정의도를 의심받게 한다. 허철은 위 논문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표 자의의 경우 종래의 사전에서 제시되었던 의미만을 고집하지 말고, 생활 한자어와 한문에서 사용된 자의를 조사하여, 자의 본의 및 인신의를 적절하게 배정할 것과 자의 서술에 있어 복합 어휘로의 서술도 고려할 것, 중학교 수준에서의 자의 제시와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의 제시의 단계성을 가질 것, 어법적 기능을 고려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sup>20)</sup>

字典에 제시된 義외에도 한문과 한자어를 모두 고려하여, 本義와 引伸義를 적절히 배정하고, 중고등학교에 따라 字義 제시를 다르게 하며, 서술은 가능하다면 복합어휘로 진술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대표훈’이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전제시 의미를 뛰어넘어, 필요에 따라서는 중, 고등학교 각각 다른 의미를 제시하고, 우리고유의 使用義 등도 고려한다면 사실 ‘대표훈’ 선정이 불가능하다. ‘대표훈’ 선정의 주목적이 한자의 一字多義를 하나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겪는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代表訓을 중심으로 한자, 한문 해독에 파급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의 훈만이 제시되면, 설령 그것이 本義라고 해도 한문문장 해석 혹은 한자어 해석에 적용하였을 때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렇다고 경우에 따라 대표훈을 다르게, 혹은 다

으로 하여금 그를 가르치겠는가?〔我明告子。有楚大夫於此，欲其子之齊語也，則使齊人傳諸?〕 ‘알리다.’(『論語·陽貨』 “얏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居，吾語汝]”)가 나왔다. 言과 語의 본의는 약간 다르지만, 필자의 주장처럼 섬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는 두 글자는 필자의 주장처럼 서로 다르게 쓰였을 수는 있지만, 이들의 의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20) 許喆,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第43輯, 동방한문학회, 2010, p.278.

양하게 표시한다면 대표훈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박정규는 突發, 追突, 過去, 過誤와 같이 뚜렷한 두 개의 義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갑자기’ ‘지나다’의 單一訓 즉, 하나의 대표훈만을 제시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代表訓을 보면, 대표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두 개 이상의 訓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訓만을 제시해 놓아 부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訓만으로는 전혀 다른 用法을 예측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재의 代表訓에는 이러한 사실이 거의 무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1)</sup>

그는 이러한 單一訓 제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제시된 代表訓이 보다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代表訓이라고 하여 무조건 하나의 訓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品詞가 다른 경우나 多義語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히 두 개 이상의 代表訓을 제시해야(한다).<sup>22)</sup>

한자의 대표훈을 무엇으로 정하던 한문독해와 한자어의 해석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한자의 一字多義는 엄밀히 말해 漢字學的 관점에서 보면 同字異詞이다. 이런 同字異詞에 통일적으로 하나의 대표훈을 부여한다는 것은 애초에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효과적인 漢字教學을 위해 하나의 대표훈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1義만을, 教學의 과급성이 가장 높은 본의를 대표훈으로 설정해야 한다.

21) 朴錠奎, 「漢字 學習을 위한 ‘代表訓’ 설정에 나타난 몇 問題」, 『語文研究』 제38권 제2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p.251.

22) 朴錠奎, 위의 논문, p.465.

## 2. 代表訓 설정에 대한 부차적 문제제기

代表訓 설정에 대한 부차적 문제제기는 진술, 표기 등에 관한 것이다. 이동재는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의미가 저자에 따라 ‘어떻게 풀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통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중학교 한문교재에 소개된 한자의 字義 진술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字音으로 의미를 부여한 한자’, 둘째, ‘字意의 서술적 표현 한자’, 셋째, ‘관습에 의한 다양한 뜻풀이 한자’, 넷째, ‘난해한 의미의 한자’, 다섯째, ‘관습에 의한 과장·오류의 한자’<sup>23)</sup>

이상 지적한 혼란과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한문과 관련이 있는 제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소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대한 의미를 통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sup>24)</sup>고 하였다.

장호성은 語文會를 비롯한 한자능력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설정한 대표훈의 문제점으로 과거 언어 습관대로 훈을 제시한 경우, 수험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혼동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 대표훈이 한자어에서의 쓰임과 다른 경우, 한자의 음과 훈을 표기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父’에 대해 어떤 단체는 ‘아비 부’, ‘애비 부’ 등의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의 낮춤말로 쓰이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世’자를 어떤 단체는 ‘인간 세’라고 제시했는데 (중략) ‘세상 세’로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使’와 ‘令’을 각각 ‘하여금 사’, ‘하여금 령’으로 소개한 단체가 있는데 (중략) 한자어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부릴 사’, ‘명령할 령’ 정도로 고쳐주는 것이 나을 듯하다. 넷째는 長을 ①‘길(장)’처럼 관형형으로, ②‘길다(장)’처럼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의 방식

23) 李東宰,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의미’ 통일화 방안」, 『漢字漢文教育』 제13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4, p.61.

24) 李東宰, 위의 논문, p.62.

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sup>25)</sup>

이상의 이의 제기와 함께 그는 각 단체가 제시한 訓이 대표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懷疑하고, 대표훈을 다시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정규는 어문회가 제시한 대표훈의 부차적 문제점으로, 刊(간행할 간)·姦(간사할 간)같은 漢字語 訓, 肝(간 간)·江(강 강)과 같은 音訓이 相同한 訓, 佳(아름다울 가)·可(옳을 가) 같은 用言 訓의 關係形態의 제시를 문제 삼고 고유어로, 基本形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6)</sup> 이상의 주장은 대표훈 설정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더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 IV. 代表訓 설정의 漢字學的 원칙 제시

字典編纂은 한자학의 영역에 속한다. 아울러 한자학의 연구 성과는 자전편찬의 기초가 된다. 특히 字義를 해석하고 배열하는데 한자학의 연구 성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훈 설정과 자전 편찬 원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표훈 설정은 자전편찬 원리를 원용해야 한다. 특히 자전의 字義확정, 義項배열 원칙은 대표훈 설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전과 대표훈의 차이는, 어떤 한자가 소유한 모든 義를 모두 제시하느냐 하나만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문회도 대표훈 설정에 자전편찬을 원용하였다. 자전에서 말한 ‘常用之釋’을 존중한다든가, 각 자전에 제시된 뜻 가운데 첫 번째 義項을 선택한다든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에 노출된 義項을 채택한다든가 등이 자전편찬을 원용한 것이다. 단, 과거 우리의 자서나, 훈몽서는 중국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자전제작이 최근과 같은 한자학 연구 성과를 수용한

25) 장호성, 「韓國 漢字能力 檢定試驗의 等級別 配定漢字 문제」, 『韓國漢文教育學報』 제26號, 韓國漢文教育學會, 2006, p.107. 참조.

26) 朴錠奎, 「漢字 學習을 위한 ‘代表訓’ 설정에 나타난 몇 問題」, 『語文研究』 제38권 제2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pp.454-469. 참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전이나 훈몽서의 첫 번째 의항 혹은 ‘常用之釋’을 대표훈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義項도 있다.

## 1. 字典과 代表訓 설정

### 1) 字典의 字義定義와 代表訓 설정

字典 편찬은 대체로 義의 저축, 整理, 소통의 세 가지 목적을 具有한다. 詞義를 저축하는 것은 크게는 인류문화유산을 保持하고, 작게는 독자들의 문화 소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소통은 저축을 전제로 한다.<sup>27)</sup> 이상과 같은 편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은 각 한자의 뜻을 해석하고, 해석된 다수의 뜻(의항)을 어떤 순서에 의해 제시할 것인가를 한자학과 언어학 지식을 응용한다.<sup>28)</sup>

古代 자전은 대부분 하나의 한자에 하나의 의항만을 두었지만 현대 자전은 한자학, 훈고학의 연구 성과로 인해 本義, 引伸義, 假借義를 망라한 다수의 의항을 수록한다. 단, 이들 다수의 의항들은 특수한 언어 환경에서 해석된 字義가 아니라 보편적 意義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概括義이다. 程俊英·梁永昌은 자전의 意義와 注釋에서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전의 釋義와 古書 주석의 釋義는 서로 같은 곳도, 서로 같지 않은 곳도 있다. 注釋은 隨文釋義의 방식을 취하여 구체적인 뜻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辭書의 釋義는 늘 詞義에 대해 歷時와 共時의 개괄적인 일반의의를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 注釋의 釋義는 單一한 것으로 단지 詞語가 구체적인 언어 환경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한 개의 뜻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辭書의 釋義는 전면적인 것으로 詞語가 역사 속에서 具有했던 각각의 뜻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多義詞의 각각의 뜻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7) 王寧, 『漢字學原理』,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pp.266-267. 참조.

28) 程俊英·梁永昌, 『應用漢字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p.259.

字典辭典的釋義與古書注解的釋義，有相同的地方，也有不相同的地方。注釋可以採取“隨文釋義”的方式解釋具體意義，辭書釋義常常需要對詞義進行歷時的和共時的概括，釋出一般義。注釋釋義是單一的，只需要解釋詞語在具體語言環境里顯示的一個意義，辭書釋義是全面的，需要解釋詞語在歷史上曾經有過的各個意義，需要解釋多義詞的各個意義。<sup>29)</sup>

注釋은 사전과 같이 概括義로 釋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隨文釋義를 하기 때문에, 注釋의 釋義는 구체적 언어 환경 속에 드러난 한 개의 意義를 해석해낸다는 것이다. 반면 사전의 釋義는 全面的이어야 하기 때문에 詞語의 역사상 존재했던 각종 意義를 歷時的, 共時的, 概括的으로 해석해낸다<sup>30)</sup>는 것이다. 鄭述譜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한다.

사전 속의 詞義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로서 개괄적 釋義를 한 것이지, 결코 자세한 구분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標注, 釋義, 例證들이 의의를 분별하여 드러내고 있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在詞典里, 詞義基本上是作為一個統一的整體來詮釋, 并不加以細致的區分, 但是人們不難看出標注、釋義和例證實際上是在分別體現意義的不同方面。<sup>31)</sup>

사전 등재 義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概括義를 추구하지 구체적 언어 환경 중의 쓰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훈 역시 특정한 언어 환경 중의 釋義보다는 概括義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개괄의를 통해 서로 다른 語境속에 사용한 한자의 의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2)</sup>

29) 程俊英·梁永昌, 『應用漢字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p.257.

30) 程俊英은 “사서에서 단지 한 개의 용례만을 근거로 釋義를 한다면, 해석한 것은 단지 詞의 구체 意義만 될 뿐이다. 이런 식의는 개괄적인 귀납을 결핍한 것으로 辭書 사용의 가치를 저하시킨다.[辭書如果只根據一個用例進行釋義, 所釋只能是詞的具體意義, 這樣釋義缺乏概括歸納, 便會降低辭書的使用價值.]”라고 하였다.(程俊英·梁永昌, 위의 책, p.257.)

31) 鄭述譜, 『語義學與辭典編纂』, 『辭書研究』第五期, 上海辭書出版社, 1987, p.6.



2) 字典의 義項 배열과 代表訓 설정

한자학의 연구 성과에 의해 밝혀낸 여러 意義는 자전을 편찬할 때 일정한 원칙에 의해 배열하여, 각 의항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야 한다.<sup>33)</sup> 각 의항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의항 배치는 본의, 인신의, 가차의 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이런 배열을 요구하는 것은 본의를 파악해야 파생된 引伸義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가차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중국의 사전 편찬은 한자학, 훈고학 등의 학문적 성과와 이론을 반영하여 字義를 定義하고 의항을 배열 한다. 『漢語大字典』의 「前言」에 “多義字는 本義、引伸義、通假義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多義字一般按照本義、引伸義、通假義的順序排列.]”<sup>34)</sup>라고 하였고, 『中文大辭典』의 「凡例」③字義'에도 “매 글자의 아래에 가장 먼저 本義를 밝히고, 引伸義를 그 다음에, 假借義는 그 다음에 밝힌다.[每字之下, 首列本義, 引伸義次之, 假借義又次之.]”<sup>35)</sup>라고 하였다. 반면 우리의 『漢韓大字典』에는 이런 의항 배열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sup>36)</sup> 이는 중국과 달리 한자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편찬의 중요한 원칙을 간과한 것이고, 나아가 대표훈 설정에 대한 비능률적 논의를惹起시킨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程俊英은 위와 같이 의항 배열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2) 陳汝法은 “계통성을 갖춘 전체 - 概括義만이 부분을 지배하고, 제어하고, 덮을 수 있다.”고 하였다. (陳汝法, 「語文詞典釋義的系統性和整體性」, 『辭書研究』第五期, 上海辭書出版社, 1987, p.13.)

33) 程俊英은 ‘자전의 釋義는 詞語의 보통의의를 개괄해야 하고, 의항을 구분하고 적절히 배열해야 하며, 한자연구업적을 흡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程俊英·梁永昌, 『應用漢字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pp.257-259. 참조.)

34)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武漢: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前言」 참조.

3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p.7.

36)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10, 「일러두기」 참조.

의항의 배열은 詞語, 意義結構 중의 내부관계를 가장 잘 體現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학과 언어학의 지식을 동원하여 多義字詞의 각각 意義의 原流와 그 변화를 정리해야한다.

排列義項最好能體現詞語、意義結構中的內部關係, 要做到這一點, 必須運用漢字學、言語學知識, 理清多義字詞各意義的源流演變<sup>37)</sup>

의항 배열의 원칙은 본의 인신의 가차의 순으로 해야 多義字詞의 각각 意義의 原流와 그 演變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字義의 내부 관계가 잘 체현된 의항배열의 예로 『辭源』 ‘冥’ 자조의 ‘①夜晩 ②暗昧, 不明事理 ③深思 ④高遠 ⑤所謂陰間<sup>38)</sup> ⑥海. 通溟’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의 ‘夜晩’은 冥의 본의이다. 이로부터 演變하여 ②의 暗昧, 不明事理로, 다시 ②항으로부터 ③, ④항의 深思, 高遠으로, 다시 ②항으로부터 ⑤항의 陰間(저승)으로 演變되었다. 이들은 모두 인신관계이다. ⑥항 ‘海’란 뜻은 가차의(溟)이다. ⑥항은 앞의 ①~⑤항과는 동일한 字義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뒤에 배열한 것은 합당하다.<sup>39)</sup>

本義(①), 引伸義(②~⑤), 假借義(⑥)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인신의도 본의로부터 파생된 순서에 의해 배열되어 각각의 意義의 原流와 그 演變이 잘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전에서 제일 첫 번째 수록해야할 義項은 본의이다.<sup>40)</sup> 본의를 제일 첫 번째 배치해야 하는 것은 이로부터 多義詞의 ‘字義의 原流와 그 演變’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楊金華도 동일

37) 程俊英·梁永昌, 『應用漢字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p.259.

38) 陰間은 yīnjiān으로 저승을 나타낸다.

39) 程俊英·梁永昌, 위의 책, p.259.

40) 王寧은 “특히 사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字의 本義를 반드시 먼저 수록해야 한다.[特別是對字典來說, 字的本義是必須首先列出的]”라고 하였다. (王寧, 『漢字學原理』,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p.274.)

한 주장을 하였다. 그는 현대한어사전의 역사배열법은 본의(基本義)를 제1의항으로 삼는데 이들 본의는 파생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詞의 현존하는 意義 가운데 파생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詞義’<sup>41)</sup>로 규정하였다. 본의(기본의)를 제1항으로 배열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詞義의 發展과 演變의 軌迹, 語義의 내부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sup>42)</sup>

字典의 義項 제시와 한자의 代表訓 설정 원칙은 같다. 다만 대표훈은 사전처럼 본의, 인신의, 가차의를 모두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는 하나의 訓 즉, 본의를 제시해야 한다.<sup>43)</sup> 본의를 파악할 수 없거나 본의가 死語 혹은 드물게 쓰인다면, 본의와 가까운 引伸義를, 이마저 곤란하다면 상용의 假借義를 제시해야한다.<sup>44)</sup> 그 이유는 本義나 基本義를 통해 다양한 언어 환경 중에 서로 다르게 사용된 字義를 유추하여, 문장 혹은 한자어 해독에 합당한 字義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楊金華, 「釋義·義項劃分·義項排列(下)」, 『辭書研究』 第五期, 上海辭書出版社, 1987, p.46. 참고.

42) 楊金華, 위의 논문, p.46. 참고.

43) 허철은 “대표 자의 선정의 문제는 한자사전의 편찬과는 다른 문제이다. 자의의 선정은 결국 한문교육에 있어 통일성과 정확성, 그리고 교육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야(‘야’는 ‘서’의 오자인 듯 : 필자 주) 진행해야 할 문제이다.”(許喆,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第43輯, 동방한문학회, 2010, pp.277-278.)라고 하여, 대표훈 설정과 한자사전의 편찬과의 상관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자의 대표훈 설정과 자전, 사전 편찬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간 중국에서 출간된 거의 대부분 漢字學書에 ‘한자학과 사전, 자전 편찬’관련 항목이 들어 있고, 첫 번째 의항에 본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자학의 연구 성과가 사전, 자전 편찬에 중요한 지도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4) 所는 伐木聲, 장소, 地位, 방법, 적당……語氣詞 등, 20개의 義項 중 本義 ‘伐木聲’ 외에 나머지는 모두 假借義이다. 이 本義마저 『詩經』 외에는 용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死語가 되었다. 이런 경우 대표훈은 假借義 중 많이 쓰이는 ‘장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3) 字典 제작과 代表訓에 대한 문제제기 검토

## (1) 字典의 字義定義와 代表訓에 대한 문제제기 : 詞義訓釋, 文意訓釋 측면에서

字典에 수록된 義項들은 기본적으로 고대에서 현재까지의 典籍에 사용된 意義들을 채록한 것이다. 漢字學者들이 전적에 사용된 字(詞)를 訓釋하여 字(詞)義를 밝힌 뒤 이들을 한 곳에 수집 정리한 것이 자전이다.<sup>45)</sup>

한자학자들의 詞義 探究는 크게 詞義訓釋과 隨文釋義의 文意訓釋으로 나뉘 볼 수 있다. 詞義訓釋은 특정한 문장이나 句를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詞義를 설명하는 것이다. 문의훈석은 詞義訓釋의 기초위에 詞의 句, 文 속에서의 구체적인 含意를 해석 설명하고 句, 段, 章의 사상과 내용을 疏通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①策, 馬鞭子(「過秦論」), ②策之, 鞭打馬(「馬說」), ③策, 策略(「海瑞傳」)이란 注釋은, 각각 자전에 등재된 字義를 바탕으로 본의 ①채찍, 인신의 ②채찍질하다, 가차의 ③책략으로 注釋한 것이다. 이들 ①, ②, ③항의 意義는 古代漢語와 現代漢語가 정확히 對譯이 되어, 위와 같은 언어 환경을 벗어나도 각각 채찍, 채찍질 하다, 책략이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sup>46)</sup> 하지만 隨文釋義의 文意注釋은 그렇지 않다. 다음 예를 보자.

① 「阿房宮賦」: “蜀山兀, 阿房出”의 주석 “出은 出現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이다.[出, 出現, 意思是建成.]”<sup>47)</sup>

② 『楚辭·離騷』: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의 王逸 注에 “美人은 懷王을 가리킨다. 임금의 服飾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美人이라고 한 것이다.[美人, 謂懷王也. 人君服飾美好, 故言美人.]”

45) 당연히 자전은 이들 많은 義項들을 漢字學的으로 위계질서를 갖도록 배열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46) 王寧, 『漢字學原理』,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p.249.

47) 王寧, 『漢字學原理』,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p.236.

①‘出’의 ‘(아방궁이) 지어지다’와 ②‘美人’의 ‘懷王’이란 주석은 위와 같은 특정한 언어 환경 속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美人이 ‘초나라 회왕’이란 주석은 ‘離騷’라는 이 문장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이 한자학자가 考證한 字義라 해도 字典에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 王寧교수는 文意訓釋에 의해 해석된 詞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의주석에 의해 도출된 의미는 詞語의 概括意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注釋 詞語와 被注釋詞語의 엄격한 대응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들 주석과 語義注釋을 특히 엄격하게 구분하여, 문의의 關發을 詞義의 詮釋으로 착각하고, 심지어 이들 의미를 語境을 떠나 임의로 융통성 없이 채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即, 這些意義, 不屬詞語的概括意義, 不能尋求注釋詞語與被注釋詞語的嚴格對當. 因此, 在指導讀注時, 應非常明確地把這種注釋與語義注釋區分開來, 以免讀者生產誤會, 錯把對文意的關發當成詞義的詮釋, 甚而把這種意義離開語境任意搬用.<sup>48)</sup>

隨文釋義는 字句의 문장 중에 내재된 含意를 진술하는 것으로, 특정한 언어 환경 중의 투과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字가 소유한 意義와 句의 직역을 통해서 소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隨文釋義에 의해 얻어진 뜻은 구체적 문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義項으로 등재하고, 다른 문장을 해석할 때 적용하여 풀이한다면 큰 착오를 범할 수 있다.<sup>49)</sup> 古代 訓釋은 상당 부분이 文意訓釋이다. 즉 특정한 字(詞)가 구체적 언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규명하는 훈석이다.

이런 文意訓釋에 의해 얻어진 字義를 정식 의항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되듯이 한자어나 한문에 노출된, 文意訓釋의 특정한 의미를 대표훈

48) 王寧, 위의 책, p.251.

49) 예컨대 ‘중쳤다.’란 말은 많은 의미로 비유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를 사전에 등재해서는 안 되고 대표적 의미만을 등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에 등재됨으로서 ‘중쳤다.’의 의미가 연인사이의 이별을 의미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當時’의 ‘當’이 ‘그, 이’로 해석된다고 하여 대표훈으로 삼자는 주장이나, 聽을 ‘자세히 듣다’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는 주장은, 특정한 언어 환경 속의 文意訓釋을 義項으로 삼자는 것으로 漢字學的 명분이 없다. 만약 代表訓만으로 한자어, 한문(문장)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 대표훈 제시와 함께 괄호나 副注를 통해 訓을 보충해주면 될 것이다. 이는 대표훈을 頻律에 의해 정하자거나, 두 개 이상을 제시하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 (2) 字典의 義項配列, 字義性格과 代表訓에 대한 문제제기

기본적으로 한 글자의 漢字는 形·音·義를 완비한 詞(단어)이다. 古代에는 하나의 한자는 하나의 形·音·義만을 소유하였다. 하지만 詞義 운동에 의해 本義로부터 引伸義가, 다시 引伸에 再 引伸을 하고, 假借義가 덧붙여져 하나의 한자에 많은 것은 40여개의 뜻을 소유하기도 한다. 대부분 한자는 本義, 引伸義, 假借義를 두루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한자는 다수의 뜻을 보유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同字異詞 즉, 同形字이다. 裘錫圭는 同形字를 狹義와 廣義로 나누고, 위 ‘當’과 같은 다수의 義項을 소유한 한자를 廣義의 同形字라고 하였다.

광의의 同形字는 不同的 詞를 나타내는 모든 相同字形을 포괄한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가차와 당하는 글자와 가차자, 예컨대 본의를 표시하는 ‘花(꽃)’와, 假借義로 ‘허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花’는 자형이 같기 때문에 동형자이다. 심지어 본의를 표시하는 글자와 본의로부터 파생된 인신의를 나타내는 글자는 동일한 글자, 예컨대 ‘도로’로 해석되는, ‘xing’으로 읽는 ‘行’과 ‘줄’로 해석되는, ‘hang’으로 읽는 ‘行’도 또한 동형자로 볼 수 있다.

範圍最廣的同形字, 包括所有表示不同的詞的相同字形. 按照這種理解, 被借字和假借字, 如表示本義的“花”和表示假借義“花費”的“花,” 也應該算同形字. 甚至用來本義的和用來表示派生詞性質的引伸義的同一個字, 如當道路講的讀xing的“行”和當行列講的讀hang的“行,” 也可以看作同形字.<sup>50)</sup>

本義, 引伸義, 假借義와 상관없이 한 글자의 형체에 다수의 뜻을 보유

한 것은 언어학적으로 보면 異詞이고, 漢字學的으로는 同形字라는 것이다. 한자는 漢語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本義외에도 본의로부터 파생된 引伸義와 동음가차의 假借義까지 다수의 뜻을 갖게 되었다. 자전은 이들 의항들을 모두 실을 수 있지만, 漢字教學書는 그렇지 못해 대표훈을 설정하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국어사전에서 ‘배’를 ‘먹는 배’ 하나만 풀이해주는 즉, 同形異詞를 하나만 풀이해주는 모순을 애초부터 지녔지만, 漢語의 字義派生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代表訓을 한자어와 한문교학용으로 이원화 하자거나, 명확히 서로 다른 뜻을 가진 한자어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대표훈을 설정하지는 주장은 漢字學的 當爲性과 ‘代表訓’ 제정의 근본정신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 2. 漢字學的 측면에서의 代表訓 설정

본의 혹은 기본의를 대표훈으로 설정해야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전 제작 원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한자학적인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1개의 한자는 多義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둘째 다른 글자의 部件으로 쓰일 때의 形素(義素)를 고려해야 하고, 셋째 어떤 한자어를 구

50)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1998. p.209. 狹義는 詞義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진 詞로 우연히 자형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예컨대 현재 중국어의 鈹(shì : 讀音 사)는 ‘창(矛)’을 가리킨다. 그런데 근대 저울이나 절단기를 나타내는 詞로 ‘鈹(tuó, tā : 讀音 타)’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국어의 먹는 배, 타는 배, 사람 배의 ‘배’ 역시 협의의 同形詞이다.

51) 김왕규는 사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한자의 훈과 음(곧 대표 훈음)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모든 문맥에 적합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라고 하였다. (金王奎, 「한자 자훈(字訓)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 3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p.201. ‘주석 4’.)

성할 때의 詞素義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는 한자학적 측면이고 셋째는 한문과 국어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지만 국어 측면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이들 세 항목은 서로 유기적이어야 하지만 불가피할 때에는 첫째와 둘째 항이 중시되어야 한다.

#### 1) 多義 측면을 고려한 代表訓 설정

多義字는 同形異字이기 때문에 자전이든 일반 서적에서든 그가 보유한 모든 뜻을 다 밝혀주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당해 서적 혹은 문장에서 소용되는 훈을 밝혀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표훈은 同形異字 현상도, 특정 서적도, 특정 문장도, 특정 한자어도 따지지 않고 대표적인 뜻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한 語境에서 詞素로써 부합되지 않는 義가 있을 수 있다.<sup>52)</sup>

한자의 多義를 고려한 대표훈 설정은 당연히 본의 혹은 기본의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當은 40여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sup>53)</sup> 본의는 ‘대등하다,’<sup>54)</sup> 引伸義는 ‘대응하다, 충당하다, 담당하다(부담하다), 주재하다, 막다, 대적하다, 처결하다, 마땅히, 만나다, 지금, 같다, 과거, 말아 관장하다, 적합하다, 부응하다, -로 대하다, 제압하다, 적중하다, 잠방이[襠]’ 등 20개, 假借義는 ‘건장하다, 간격, 량사, 부사, 개사, 連詞, 조사, 의성사, 古

52) 문제 제기자들 역시 한자의 이러한 문자학적인 특수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이 부족하였다.

53) 當은 40여개의 의항을 가지고 있다. 한자의 字義는 문자 형태, 혹은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한자의 가장 초기의 뜻인 本義, 본의로부터 파생된 引伸義, 音同, 音近으로 인해 형성된 假借義가 있다. 본의와 基本義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기본의는 詞의 最常用, 最基本이 되는 의의이다. 예컨대 ‘寬’은 ‘가로 길이가 큰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다, 기본의는 詞의 응용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대부분 본의이다. 하지만 ‘兵’은 본의가 ‘兵器’인데 기본의는 ‘兵士’인 것처럼 본의와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다. (中國言語學大辭典編委會, 『中國言語學大辭典』, 江西教育出版社. 1991, p.288. 참조.)

54) 當은 『說文·田部』에 “밭이 서로 대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田이 의미를 尙이 소리를 나타낸다.[當, 田相值也. 從田尙聲.]”라고 하였다.



州名, 일찍이, 성, 잡히다, 기물의 바다 혹은 맨 위, 편당’ 등 19개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한자는 다수의 뜻을 보유하고 있는데, 假借義는 단순히 音同 혹은 音近의 한자를 빌려 나타낸 것으로 본의 혹은 引伸義와는 詞義派生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同形字의 대표적 訓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본의를 혹은 기본의를, 이마저 적당하지 않으면 인신의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當’의 경우 서로 다른 語境에 소용될 때를 고려하여 본의 ‘대응하다’를 제시하고, 이 본의를 중심으로 20개의 인신의례 학습에 응용, 확산, 유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문회의 ‘마땅’이나 일부 논문에서 주장한 ‘이(그)’<sup>55)</sup>로 제시한다면 본의는 물론이요 나머지 20개의 引伸義로의 유추나 활용이 어렵다는 것은 명확하다.

## 2) 形素를 고려한 代表訓 설정

어떤 한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음과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의 部件이 되기도 한다. 즉 다른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形素)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들 부건은 자신이 參構하고 있는 한자의 뜻, 혹은 독음과 관계한다. 예컨대 ‘手’가 參構한 扌, 拘, 扣, 扶, 持, 抵, 攷, 把, 抑, 投,

55) 참고로 當의 ‘이(그)’란 義는 본의로부터 再引伸한 뜻이다. 원형은 ‘當~時’인 듯하다. 전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左傳·宣公十八年』: “臧宣叔이 노하여 말하길 ‘公孫歸父의 아버지 襄仲의 죄를 그 때에 미쳐 다스리지 않고 아들을 벌하려 하는데 아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하였다.[臧宣叔怒曰, ‘當其時不能治也, 後之人何罪!’], ② 생각해보아라. 배에 불이 붙음을 당할 때면 아마 배꼽을 깨물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想當燃腹之時, 必恐噬臍不及] (崔致遠, 『桂苑筆耕集·橄黃巢書』), ③ 신과 같은 사람은 부친께서 화를 당한 날에도 나아가 머리를 대궐에 꿇어 부수지도 못하고 그 삶을 구걸하였습니다.[若臣當先臣禍變之日, 進既不能碎首北闕, 以丐其生.] (金昌協, 『辭戶曹參議疏』). ①, ②는 ‘當~時’이고 ③는 ‘當~日’이다. 當의 쓰임이 약간 다르다 해도 當의 인신의례 당하다, 미치다, 감당하다 등으로 쓰였다. 이들 ‘當~時’, ‘當~日’로부터 當의 賓語를 생략하고 생산된 한자어가 ‘當時’, ‘當日’이다. 빈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當時의 當을 ‘이, 그’로 해석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자전에 ‘이, 그’가 수록된 것이다.



票, 標, 標'는 '가볍다, 뜨다'를, ⑥'驃, 標, 彰, 飄, 飄, 嘯, 嘯'는 '빠르다, 날다, 급하다'를, ⑦'飄, 標, 標, 漂'는 '회오리바람, 들어 올리다'를 나타내었다. 본의를 중심으로 ⑥, ⑦가 유사한 의미군 즉 引伸義를 나타낸다. 또, 『漢韓大字典』에 票로 시작되는 6개의 단어 중 '표'란 뜻으로 쓰인 것은 '票決' 하나뿐이고 票禽, 票然, 票姚 등 3개는 '빠르다'란 뜻으로 썼음을 참고하면 票의 대표훈은 '불뚱'이 적합하다.<sup>58)</sup>

(2) 卷

語文會는 卷의 대표훈을 '책'으로 제시하였다. 卷은 聲符 '夨'과 義符 '匚'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며,<sup>59)</sup> 본의는 무릎이다.<sup>60)</sup> 卷은 현재 단독 혹은 다른 글자의 形素로 쓰일 때 '무릎'이란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基本義 '굽다'로 쓰인다. 무릎이 둥글기 때문에 굽다, 원통형으로 만들다, 싸다, 둥글다, 두루마리, 책, 시험지, 문서 등이 파생되었다.<sup>61)</sup> '두루마리, 책, 시험지, 문서' 등은 죽간이던, 종이에 쓴 것이던 古時 책이나 문서 등을 둥글게 말아 두는 것으로부터 인신하였다.

卷의 부건 '夨'도 卷의 독음뿐만이 아니라 '구부러지다, 둥그렇다'란

58)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10, p.1597.  
 59) 『說文·匚部』에 “夨은 밥을 둥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卍이 의미를 夨이 소리를 나타낸다.[搏飯也. 從卍, 夨聲.]”라고 하였다. 즉, 밥을 주먹밥처럼 둥그렇게 말아 올린 것을 가리켰다. 손으로 밥을 둥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卍'이 義符인데, 聲符 夨 역시 '둥글다'라는 語源義를 나타낸다. 이하 '卷'에 대한진술은 줄고, 「同聲符의 同源字를 활용한 한자교수학습법 연구」(한연석, 『東方漢文學』 제43집, 동방한문학회, 2010, pp.167-196.)를 참조하였다.  
 60) 『說文·匚部』에 “卷은 무릎이다. 夨이 의미를 夨이 소리를 나타낸다.[卷, 𠂔曲也. 從夨, 夨聲.]”라고 하였다.  
 61) 『漢語大字典』에 “무릎, 굽다, 아름다운 모양, 拳과 통, 원통형으로 만들다(後作 捲), 량사(卷형으로 된 것), 거두다(갈무리하다), 소매를 묶다, 물건을 싸다, 옥하다(방언임), 圈과 통, 두루마리(고시 책), 시험지(試卷), 檔案(문서), 피로하다(후작 倦), 량사(서적), 계약(券과 통), 성, 冠의 아랫부분 가장자리, 古邑名, 곤룡포, 古縣名” 등이 제시되었다.



학습에도 거의 적용할 수 없다.

## V. 結語

한자 생산 초기에는 하나의 한자에 하나의 形, 音, 義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形義 통일이었다. 하지만 漢語의 演變과 문자의 생산에 괴리가 일면서 1자 多訓이 되었고, 形義統一이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대표훈은 이러한 漢字學的 배경을 고려하여 본의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形, 音, 義의 演變이 너무 커 본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基本義를, 이도 곤란하면 引伸義를, 다시 곤란하면 常用의 假借義를 제시해야 한다.

개별 한자의 다양한 演變으로 인해 代表訓을 합리적으로 제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又’는 자신이 參構한 字符들에서 대부분 본의 ‘손’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또’란 뜻으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來 역시 본의 ‘보리’보다는 ‘오다’란 가차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별 한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표훈은 한자학을 기본으로 본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통, 傳統字書, 다수 새김의 뜻’ 등은 한자학적으로 대표훈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참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용한자의 代表訓 설정의 큰 목적은 1字1訓으로 학습자 혼란을 줄이고 전통적 漢字教學방법을 保守하기 위함이었다. 漢字學的 기반이 취약하였던 2000년 語文會의 대표훈 설정은 최선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대표훈 制定 이후 대표훈의 수정, 單數訓과 複數訓의 설정, 多數訓 허용, 서술형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異議 개선의 중요한 원인은 대표훈에 대한 定義, 무엇을 대표훈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漢字學的 접근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異議 제기자들 역시 漢字學的 기반 없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絶長補短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논의를 이끌지 못했다. 대표훈이 무엇이고, 대표훈 선정의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한 한자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정통성, 당위성을 확보하고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

字典편찬은 漢字學, 訓詁學의 연구 성과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문회의의 ‘普遍的이고 合理的인 訓’은 그것이 설령 전통의 蒙學教材, 字書를 참고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통자서는 대부분 중국의 그것을 모방한 것인데, 과거 중국의 자서는 漢字學의 지도하에 제작된 게 아니다.

漢字學에서 주장하는 字典의 字義 해석과 義項 제시 방법을 참고하면 대표훈 제시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자전은 다수의 의항을 本義, 引伸義, 假借義 순으로 배열하고, 개괄의만을 수록한다. 대표훈은 가장 대표성을 띤 訓 하나만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本義를 대표훈으로 선정해야 한다. 本義를 찾을 수 없거나 罕用, 혹은 死滅되었으면 基本義를, 마찬가지로 기본의가 여의치 않으면 引伸義를, 이마저 곤란하면 常用的 假借義를 대표훈으로 선정해야 한다. 한자는 詞義운동에 의해 본의로부터 인신의가 파생되고, 音同 혹은 音近으로 인해 가차의를 보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자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훈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원칙은 세울 수 있다. 최선은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義(가차의 제외)를 概括하고, 轉移가 가능한 本義를 대표훈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자어 혹은 문장을 해석할 때 응용할 수 있다.

한자어 역시 그 詞義가 축소, 확대, 轉移, 死滅 등의 演變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와 詞素 사이에 直解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빌미로 대표훈을 수정하거나 2개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漢字學的 합리성 여부를 떠나, 새로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문제제기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漢字學的 기반 없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당위성과 대안에 미진한 감은 있지만, 대표훈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1字1訓으로 부족하다 하여 2, 3訓을 제시하면 대표훈 제정의 원칙과 정신이 훼손된다. 대표훈 외에 다른 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 附加 해주면 된다. 2訓 제시는 과거 저작물 마다 마음대로 붙여주었던 訓의 제시와 다를 바 없고, 굳이 代表訓이라고 부를 필요도, 대표훈 제정의 이유도 없다.

<參考 文獻>

- 許 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92.
-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委員會, 『教育漢字 代表訓音 選定(案)』, 서울; 社團法人 韓國語文會, 2000.
-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10.
- 中國言語學大辭典編委會, 『中國言語學大辭典』,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1.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6.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武漢;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 吉善英, 「教育用漢字的 代表訓 設定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國語教育專攻, 碩士學位論文, 2007.
- 金王奎, 「한자 자훈(字訓) 이해와 한자어 의미 이해의 상관도」, 『청람어문교육』 3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 朴錠奎, 「漢字 學習을 위한 ‘代表訓’ 설정에 나타난 몇 問題」, 『語文研究』 제 38권 제2호, 서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 李果珍, 「教育漢字的 代表訓 研究」,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李東宰,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의미’ 통일화 방안」, 『漢字漢文教育』 제13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4.
- 장호성, 「韓國 漢字能力 檢定試驗의 等級別 配定漢字 문제」, 『韓國漢文教育學報』 제26號, 韓國漢文教育學會, 2006.

- 許 喆,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第43輯, 동방한문학회, 2010.
- 한연석, 「票를 根源聲符로 한 同源字 考釋」, 『中國學論叢』 제27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 , 「同聲符의 同源字를 활용한 한자교수학습법 연구」, 『東方漢文學』 제43집, 동방한문학회, 2010.
-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楊金華, 「釋義·義項劃分·義項排列(下) - 《現代漢語詞典》和《小羅貝爾法語詞典》的對比初探」, 『辭書研究』 第五期,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 王 寧, 『漢字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제1책), 北京; 中華書局, 1996.
- 鄭述譜, 「語義學與辭典編纂」, 『辭書研究』 第五期,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 程俊英·梁永昌, 『應用漢字學』,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 陳汝法, 「語文詞典釋義的系統性和整體性」, 『辭書研究』 第五期,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 Abstract

*Study on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renderings of Chinese characters  
for education / Han Youn Suk\**

Daepyohun (representative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is established to decrease the confusion of learners by presenting one meaning for one character rather than multiple meanings. The purpose is to protect the traditional method to learn the Chinese characters.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academic background of exegetics was weak, the representative renderings that(incorporated association) Korean language literature council and(incorporated association)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established in 2000 was the best. However, since representative rendering was established, some papers were published to demand that the representative renderings should be changed, single rendering(one meaning) and multiple rendering(two or more meaning) should be established, respectively and the narrative form should be changed. The reason is that the definition and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are insufficient in view of exegetics. The exegetics claimed that array of uihang(items presenting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in Chinese dictionary should have Bonui(the first meaning that Chinese character has), Inshinui(the meaning derived from the first meaning) and Gachau(the meaning borrowing other character which has the same pronunciation regardless of Bonui or Inshinui) in orders. Since representative renderings cannot present them all and pick the most representative one, Bonui should be selected for representative rendering. If the Bonui cannot be found, is rarely used or becomes extinct, the basic meaning should be representative rendering. Likewise, if the basic meaning is not sufficient, Inshinui would be

---

\*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anyoun4860@hanmail.net

representative rendering. If Inshinui is not sufficient, Gachau being universally used will become the representative rendering. Due to sau movement (other meaning is derived from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e character may have up to 40 meanings. However, since Bonui ha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summarizes every meaning under any situation and condition, it can be utilized upon interpreting various Chinese characters or sentences and the transition in learning can occur. If 2-3 meanings are given to one Chinese character, it would be the same as before when the meaning was given to publication by their own ways and would destroy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renderings. Also there is no need to call it the representative rendering and no reason to establish the representative rendering.

**【Key words】** representative rendering, Uihang, Bonui, Inshinui, Gachau, exegetics, single rendering, multiple rendering

투고일 : 5월 9일, 심사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